

『야부노나카(藪の中)』 소고찰(3)*

- 다케히로(武弘)죽음의 원인과 마사고(真砂)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감영희**
kamyol1110@t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 「巫女の口を借りたる死霊の物語」의 마사고 역할 |
| 2. 『야부노나카(藪の中)』 이해 | 5. 다케히로 죽음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마사고 |
| 3.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 | 6. 결론 |

主題語: 야부노나카(YABUNONAKA), 다케히로(Takehiro), 죽음(death), 원인(cause), 마사고(Masago)

1. 서론

본 연구자는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야부노나카』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아쿠타가와와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야부노나카』는 1922년 1월 『新潮』를 통해 발표되었지만, 그에 앞서 그는 여성에 대한 불신을 주제로 몇 개의 작품¹⁾을 마치 강박관념처럼 반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불신’이라는 주제를 일련의 작품으로 형상화하려는 아쿠타가와와 집념과도 같은 것이, 그의 문학적 성향과 맞물리면서 많은 전거 소재와 그만의 새로운 기법이 더해져서 마침내 완성된 작품이 『야부노나카』가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야부노나카』의 여주인공 마사고(真砂)에 대해 고찰(1)²⁾과 (2)³⁾를 통해 아쿠타가와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과제번호/2015A054)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尾生の信』『手巾』『疑惑』『河童』『窃盗』『二つの手紙』 등

2) 감영희(2015) 「야부노나카 소고찰(2)-기요미즈데라에 온 여자의 참회 단락에서 보는 마사고의 사랑」 『일본문화연구』 56집, 동아시아일본학회

3) 감영희(2015) 「藪の中 소고찰(1)-다조마루의 자백을 통해본 마사고상」 『일본근대학연구』 4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에 의해 그려진 마사고의 사랑의 방식과 마사고 상(像)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아부노나카』의 여주인공 마사고에 대한 그 세 번째 고찰로써, 다케히로를 통해 보는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적 인식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마사고가 남편 다케히로(武弘)의 죽음에 미친 영향관계에 대해서 집중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흐름의 파악을 위해 『아부노나카』의 마사고에 대한 고찰(1)과 (2)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대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부노나카』의 등장인물은 모두 7인이다. 그 중 도적 「다조마루(多囊丸)의 자백」, 처 「마사고(真砂)의 고백」, 그리고 사령(死靈)이 된 남편 「다케히로의 자백」 단락은, 주인공 당사자 세 사람의 고백과 자백이 중요내용이 되고 있는 핵심적 단락이다. 다조마루는 자백을 통해, 자신은 마사고의 요청으로 다케히로를 살해하였지만 그 과정은 다케히로의 포박을 풀어준 뒤 정정당한 결투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사고는 품속에 감춰두었던 단도로 남편 다케히로를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그 뒤 자신도 죽고자 하였으나 결국 죽지 못하고 기요미즈데라(清水寺)에서 참회의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무녀의 입을 빌려 등장한 다케히로의 영혼은, 도적에게 자신을 살해하도록 요청한 것은 처 마사고이지만, 마사고가 도망친 후 다조마루도 떠나자 홀로 남겨진 자신은 마사고가 떨어뜨린 단도를 집어 자기 스스로 자결했다고 한다.

결국 문제는 당사자 3인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즉 모두 자신이 다케히로 살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부노나카』의 진상과 범인 찾기, 또는 주인공들의 발언에 대한 허와 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이상의 증언과 자백을 토대로, 숲속에서 발견된 남자의 사체는 숲속을 이동하던 부부가 도적 다조마루를 만나 습격당한 후 벌어진 결과이며, 다조마루는 다케히로를 나무에 묶고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처인 마사고를 강간했다는 것은 사실로 일치되고 있다. 다원적 초점⁴⁾에 의한 모순 가운데 진상과 살해범인이 누구인지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구성을 취하면서 다케히로의 사인을 두고 각각 우연·타살·자살이라는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마사고가 원인이 되어 다케히로가 살해되었다는 것, 혹은 다케히로 자살의 한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 마사고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고찰(1)의 「다조마루의 자백(多囊丸の白状)」 단락과 고찰(2)의 마사고 자신의 고백(「기요미즈데라에 온 여자의 참회(清水寺に来たる女の懺悔)」 단락을 토대로, 특히 다조마루에게 강간당한 후 마사고가 남편 다케히로(武弘)의 죽음에 미친 영향관계에 대해

4) 篠崎美生子(2005)「資料室」『芥川龍之介』翰林書房、日本文学コレクション、pp.48-50

분석하며, 특히 다케히로의 자백 단락(「무녀의 입을 빌린 유령의 이야기(巫女の口を借りたる死霊の物語)」)을 중심으로 마사고의 심리행동에 대한 종합적 해석 및 다케히로 죽음의 원인제 공자로서의 마사고의 존재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결국 아쿠타가와에게 있어 여성불신적 인식이 마사고를 통해 어떻게 추구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하, 원문의 인용은 『文芸読本-芥川竜之介』⁵⁾에 따른다.

2. 『야부노나카』이해

1950년 일본에서 개봉된 영화 『라쇼몬(羅生門)』은 이듬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원작자 아쿠타가와와 이름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⁶⁾ 사실 아쿠타가와와 『라쇼몬』이라는 제목의 단편을 썼지만, 영화『라쇼몬』은 영화의 타이틀 역할로 제목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실제 대부분의 내용과 줄거리는 작품 『야부노나카』를 소재로 재구성한 것이다.

『야부노나카』는 그 분량에 차이는 있지만, 대개 8~10여 페이지에 불과한 단편으로⁷⁾ 전거 작품과 그 수법의 면에서 복잡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지성 또는 이지(理智)를 앞세우는 주지주의(主知主義)적 작가라 할 수 있는 아쿠타가와와 지식의 집대성이라 할 취향과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고전작품이나 서양의 작품을 자주 전거로 사용했던 아쿠타가와와 문학성에 대해 이케자키 타다타카(池崎忠孝)는 그를 ‘표절가(剽竊家)’라고 단정하였으며⁸⁾, 호리 타쓰오(堀辰雄)는

「그는 결국 그 자신 고유의 걸작을 갖지 못했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그의 어떠한 걸작도 지난 세기 걸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⁹⁾

고 비평했다. 후자는 정곡을 파악한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자는 문맥 전체로 보아

5) 『文芸読本-芥川竜之介』河出書房新社(1975)、p.202

6) 斎藤襄治(1955)「外国人の見た芥川」『芥川竜之介案内』岩波書店、pp.239-250 参照

7) 『日本文学全集22-芥川竜之介集』新潮社(1967)、pp.323-334

『文芸読本-芥川竜之介』河出書房新社(1975)、pp.202-208

8) 池崎忠孝(1958)「大友芥川への告別」『芥川竜之介研究』筑摩書房、p.77

9) 「彼は遂に彼固有の傑作を持たなかったと断言して良い。彼のいかなる傑作の中にも前世紀の傑作の影が落ちている」堀辰雄(1955)「芥川竜之介論」『堀辰雄全集』第5巻、新潮社、p.371

일관되게 아쿠타가와 문학을 폄하하는 비평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면 아쿠타가와라는 작가의 높은 상상력의 풍부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는 『야부노나카』뿐만 아니라 아쿠타가와와 작품과 그 소재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성립되는 작품은 오히려 보기 드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소재의 근원은 동서고금에 걸쳐있으며, 하나하나가 마치 모자이크 조각처럼 정교하고 적합한 구성으로 배치되어있는 점, 그리고 조화와 융화의 정도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야부노나카』는 작가 아쿠타가와와 머리를 통해 새롭게 창작되어져 나온 것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비록 아쿠타가와와 일본인이라고 하지만, 그 소재의 전거를 찾고 그것의 좋고 나쁨의 가부를 선택하는 취향과 촉각과 감수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천재적 자질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자질은 여러 개로 모아진 소재의 구사를 통하여 마치 언어의 마술사처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은 모방에 능하다. 우리의 작품도 서양인 작품의 모방이라는 것은 쟁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처럼 모방에 능하다. 휘슬러¹⁰⁾는 유화 위에 우키요에(浮世絵)를 모방했다. 아니, 그들은 그들끼리도 역시 서로 모방하고 있다. 더구나 과거로 거슬러 오르면 큰 대륙 중국도 그들을 위해 어느 정도 선례를 보일 것이다. 그들은 혹은 그들의 모방은 ‘소화(消化)’라고 할지도 모른다. 만약 ‘소화’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방도 역시 ‘소화’이다.¹¹⁾」

이것은 아쿠타가와 자신이, 소재가 된 전거작품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 기술한 문장이다. 과거 시마다킨지(島田謹二)는 아쿠타가와를 ‘grand imitateur’ 혹은 ‘가이라이샤=구구쓰시(傀儡師)¹²⁾’라고 불렀다.¹³⁾ 아마도 ‘구구쓰시’라고 한 것은 인형이 조종당하듯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남에 의해 조종된다는 뜻에서 모방의 뜻으로 해석한 듯하다. 하지만 이상에서 아쿠타가와가 사용하고 있는 ‘모방’과 ‘소화’라는 두 단어를 인용한다면, 아쿠타가와와는 적어도 『야부노나카』에 있어서는 큰 표절자가 아니라, 위대한 모방자, 혹은 동화된 사람이 아닐까 한다.

10) Whistler, James Abbott McNeill: 미국의 화가(1834-1903). 인상파의 선구로서 시정(詩情)있는 담채(淡彩)의 풍경화·초상화를 주로 그렸음.

11) 「文芸的な余りに文芸的な」23「模倣」『芥川竜之介全集』第5巻(1958)、筑摩書房、p.151

12) くぐつし、くぐつ、かいらいし: 나무로 만든 인형(木偶) 혹은 그것을 조종하는 부속을 일컫던 말. 당초에는 유랑민처럼 돌아다니는 예능인 중 수렵과 傀儡(인형)을 사용해 예능을 생업으로 한 집단이었다. 후에 돌아다니 예능인 그룹을 가리키게 됨. 여성의 경우 구구쓰메(傀儡女)라고 함.

<https://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16.4.11)

13) 篠塚眞木(1968)「芥川竜之介の創作とアナトール・フランス」『大正文学の比較文学的研究』明治書院

3.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

여성불신이라는 것은 남성이 여성을 믿지 못하는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여성을 믿지 못하는 심리는 여성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가능한 여성과는 관련되고 싶지 않다는, 즉 여성과 접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여성자체를 경멸하는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인 여성불신의 경우 여성을 피하려 할 뿐이지만, 적극적인 여성불신의 경우, 여성을 심리적으로 멸시하거나 때로는 여성에 대한 태도나 말이 위압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여성불신은 또한 실연의 경험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날 수 있으며, 유년시절 신체적·정신적 체험에 따른 마음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불신의 정도는 가벼운 혐오감이나 열등감에서 중증의 강박관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심각할 경우 여성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는지 안절부절 하는 경우도 있다.

남성들의 여성불신에 원인은 많겠지만 가장 큰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성장기 모친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이다. 유년시절 모친으로부터 받은 과도한 질책이나 매도, 체벌 등은 남성을 여성불신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그것은 유년시절의 모친이야말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어야 할 가장 큰 존재 소중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모친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는 거친 언어폭력과 기세로 꾸짖거나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는, 상상이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성장해서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한 모친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여성불신이 되어버린 남성은 가정을 꾸릴 가치관을 잃어버리거나 여성을 만나거나 아이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생각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실연하거나 상대 여성이 바람을 피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 경우이다. 사랑했던 여성으로부터 가혹하게 버림받는 실연의 고통, 혹은 믿고 사랑했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움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남성의 경우, 여성불신을 초래한다.

그 외 여러 경우를 들 수 있겠지만, 특히 여성에게 경시당하거나 배신당한 경험으로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상한 경우도, 그 열등감이 트라우마로 남아「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더 이상 모욕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여성불신으로 이어지는 예도 들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 경우 단편 『갓빠(河童)』¹⁴⁾를 통해 그의 연애편을 엿볼 수 있다. 갓빠¹⁵⁾의

나라에서는 길가에서 암놈이 수놈을 쫓아가 달라붙어 매달리면서 연애는 시작된다. 유전자의 평균화, 즉 좋은 갓빠는 나쁜 갓빠와 연애를 함으로써 나쁜 유전자를 일소시킨다. ‘사람의 경우라면 좋은 집안의 아가씨가 자신을 모시는 운전수에게 이끌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갓빠』에서의 아쿠타가와와의 설명은 흥미롭다. 즉 아쿠타가와가 여기서 말하는 연애는 그야말로 본성적인 성욕과 물욕의 직접적인 표출이어서 순수한 연애는 아니다. 이 세상에 순수한 연애가 존재하는지 어떤지는 차치하고, 연애를 하면서 뻔뻔하게 이중으로 바람을 피우거나 상대를 괴롭히려고 눌러앉는 여성의 이기주의를 통해, 여성불신에 빠져버린 아쿠타가와와의 심리상태가 『갓빠』를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아쿠타가와가 결벽증이 있는 낭만주의자라고 한다면 여성을 불신하는 남자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쿠타가와와는 무의식 중에 여성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추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남성은 이상적인 여성상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쇼킹한 언동이나 행동에서 괴리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불신감이 더욱 강해질 것은 당연하다. 일단 불신감이 생기고 나면 그것을 없애기란 결코 쉽지 않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로운 상대를 통해 극복하든지 아니면 기분을 능숙하게 전환시키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아쿠타가와와의 경우, 여성불신을 초래한 경우는 첫째 모친으로부터의 버려졌다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1924년 쓰여진 소설 『다이도지신노스케의 반생(大導寺信輔の半生)¹⁴⁾』은 아쿠타가와와의 자살 3년 전 완성된 작품이다. 다이도지신노스케의 반생을 돌아보는 형식으로 다이도지신노스케가 아쿠타가와와 자신을 일컫는다는 것은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거기에는 아쿠타가와가 세상과 그의 모친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술되어 있다. 그는 어려서 모친의 젖을 받아먹은 적이 없다. 우유로만 자라난 그는 이 사실에 대해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憎まずにはいらぬ運命)’이라고 하여 자신의 운명을 책망하고 있으며, ‘내 어머니는 광인이었다(僕の母は狂人だった)’라는 기술을 통해 그에게 모친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신경과 의학자 후쿠시마 아키라(福島 章)는 그러한 사실이 ‘아쿠타가와에게 3종의 그늘’을 드리웠다고 기술한다.¹⁵⁾ 그 첫째는 생물학적 유전의 영향(만년 아쿠타가와 자신도 통합실조증(統合失

14) 『河童』: 아쿠타가와가 1927년(昭和2년)에 종합잡지 『改造』에 발표한 소설. 당시 일본사회, 혹은 인간사회를 통렬하게 풍자, 비판한 소설로, 같은 해 아쿠타가와와의 자살동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다. 만년의 대표작으로 아쿠타가와 기일 7월24일을 『河童忌』라고 부르는 것도 이 작품에 의한다.

15) 일본요괴·전설상의 동물, 혹은 미확인동물. 河太郎(かわたろう)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일본전국에서 전승되며 그 명칭이나 형상도 각 지방에 따라 다르다. 수신(水神) 혹은 수신이 실린 매체라고 함. 오니(鬼) 덴쿠(天狗)와 더불어 일본 요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 京極夏彦·多田克己 編著(2000)『妖怪図巻』国書刊行会, p.147

16) 1925년 1월 『中央公論』에 발표된 미완의 만년 작품

調症)¹⁸⁾상태라고 생각한 원인), 둘째는 모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셋째는 정신병에 대한 공포라고 하였다. 그 중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의 체험은 모친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후쿠시마가 유아기 모친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의 경우 ‘성격형성에 기본적인 안심감·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듯이, 아쿠타가와도 모친으로부터 만족한 신체적 접촉과 수유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여성불신에 대한 최초 체험이었을 것이며 유아기에 시작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병은 유전이라고 생각되던 당시 아쿠타가와 자신은 모친을 닮아 ‘정신병에 걸리는 것은 아난가’ 하는 공포와 불안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다. 이처럼 모친이 아쿠타가와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은 가히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불신의 최초 경험은 모친에 의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누구나 추구하는 모친상의 최고 도달점은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을 사랑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아쿠타가와에게 모친은 공포와 파괴의 대상, 나아가 여성불신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년기 모친을 상실해야 했던 아쿠타가와에게는 이때부터 이미 죽음(자살)을 향한 강한 욕구충동이 있었는지 모른다. 수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쿠타가와로서는 그야말로 여성(=모친)이란 긍정적 이미지의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아쿠타가와와 유·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아쿠타가와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는 ‘통합실조증(병적학적 견지에서)’이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쿠타가와도 『다이도지신노스케의 반생』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엄마의 젖가슴만은 알고 있는 그들(친구)이 부러웠다」¹⁹⁾

고 하여, 초등학교 시절 동년배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년배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아쿠타가와에게 모친은 여성과의 관계를 통한 편안함이나 안전감 등은 특별히 느낄 수 없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두 번째 여성불신의 경험은 히데 시게코(秀しげこ)와의 만남과 그 관계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시게코와의 만남사건은 모친과의 영향이 아닌,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강한 절망감과 배신감이 강한 트라우마로 작용한 예로써, 그야말로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에 큰 영향을 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 유서에도 언급되고 있는 히데부인(秀夫人)이란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의 여류시인으로, 히데시게코라는 여성을 가르키는 말이다. 모친은 게이샤(芸者)로 부친은

17) 福島章(1983)「病跡学から見た芥川龍之介」『国文学解釈と鑑賞』48(4), pp.169-174

18) 통합실조증(독일어/Schizophrenie, 영어/schizophrenia):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 불리던 精神疾患(정신장애)군의 명칭. 이 증상의 상담과는 정신과이며, 정신과 의사가 진찰에 임함.

19) 何を知らぬにもせよ、母の乳だけは知っている彼(芥川)の友だちを羨望した。

제국극장(帝國劇場)의 전기기사였다. 시인으로서 명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으나 아쿠타가와 시게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시게코는 아쿠타가와 의 가족이 사는 집에 일요일마다 나타날 정도로 집요하여 아쿠타가와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은 단 한 차례의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관계를 통해 그녀의 동물적이고 격한 욕구 앞에 아쿠타가와는 질색하였고 또 아쿠타가와에게는 제자뻘인 사사(師事)받던 젊은 작가 난부 슈타로(南部修太郎)와도 정을 통하는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단숨에 마음이 식어버렸다. 그러나 그 후로도 시게코는 아쿠타가와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아쿠타가와는 그러한 시게코를 혐오하였고 가끔 거론되던 중국취재 기자직을 승낙함을 계기로 그녀와의 인연을 끊고자 했다. 그 후 두 사람의 남녀관계는 끝난 것 같지만, 시게코는 그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그가 사는 곳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놀랍게도 그의 사후에도 아쿠타가와와 미망인 앞에 나타나기까지도 했다.

시게코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1919년 6월10일 「도카카이(十日会)」라는 신진 문인들의 모임에서 알게 된 시게코는 아쿠타가와가 만난 여성들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아쿠타가와와 일기 『가키쿠쓰모쿠로쿠(我鬼窟目録)』에 의하면 수인(愁人)이라고 부를 정도로 연모했던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도카카이(十日会)에 출석하여 시게코를 만날까? 잠들지 못하는 밤. 수인(愁人) 히데시게코를 생각하네. 처음 시게코와 둘이 만나 밤 깊어 귀가했지만, 마음의 심란함은 끊이지 않네. 빈번하게 수인(愁人)을 떠 올리네. 깊은 밤 「요파속편(妖婆続篇)」을 탈고한 후 책상에 옆으로 엎드려 수인을 그리워하네.」²⁰⁾

아쿠타가와가 그녀를 얼마나 연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쿠타가와와 시게코와 두 번의 만남 중 단 한 번의 정사를 나누었고²¹⁾ 그것은 평생 감내해야 할 고통이 되었다. 이러한 시게코와의 상황은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의 <광인의 딸(狂人の娘)>, 「하구루마(齒車)」에서의 <복수의 신(復讐の神)>으로 시게코가 설정²²⁾되고 있듯이, 그의 윤리

20) “「十日会」に出席し、秀しげ子に会うか? 夜、眠れない。「愁人」秀しげ子を思う。初めて、しげ子とふたりだけで会い、夜帰宅。「心緒乱れて止まず」。しきりに「愁人」を想う。深夜「妖婆続篇」を脱稿。その後「臥榻」に横はつて頻に愁人を憶ふ。”(『我鬼窟目録』)

21) 『我鬼窟目録』를 보면 다이쇼(大正)8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2번 밀회를 가졌다고 함. 시게코는 그 해 10월 남자아이를 생산하였는데 아쿠타가와를 닮았다는 소문을 내어 아쿠타가와를 괴롭혔다.

22) 「秋(大9)は、しげ子が素材を提供したといわれる。またしげ子を描いた作品としては「齒車」<復讐の神>「或阿呆の一生」<狂人の娘>などがある。

【日語教學】芥川龍之介『遺書』<https://www.douban.com/group/topic/41463015/>

도덕적 충격은 그 바로 1년 후 작품인 『아부노나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아쿠타카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이 있지만, 최근 한 연구²³⁾에서 아쿠타카와의 자살은 처자가 있는 여성과의 불륜이며, 그 불륜상대가 자신을 스토커하는 행위에 대한 공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쿠타카와는 유서에서

「나는 과거 생활의 총결산을 위해 자살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큰 사건이었던 것이 29세 때의 히게(秀)부인과 범죄를 일으킨 것이다.»²⁴⁾

라고 기술하고, 시게코와의 관계를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자살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어리석은 한 순간 매료된 여성에의 이탈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흔들어 놓았는지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야 마땅하다’는 듯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쿠타카와에게는 그러한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자살을 선택한 의지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쿠타카와의 일상생활은 그의 소설 창작에 깊이 관련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문학 사회의 일반론이다. 아쿠타카와의 주변 여성관계와 그의 작품에 녹아든 여성인식 및 여성불신에 대한 사고를 검토해 보면, 특히 『아부노나카』 집필을 전후한 사적 생활을 주목해 볼 때, 본 작품을 집필하기 전 만남을 가진 여성 히데 시게코와의 관계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아쿠타카와의 여성불신은 첫째 태어나면서 가장 믿고 친근한 존재여야 할 모친이 그 최초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소년기의 경험 중 모친이라는 가까운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어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심층 속 내재하던 경험에서 드러난 경우라 하겠다.

두 번째, 우수의 여인이라 할 만큼 매료된 여성의 드러낸 본성을 알게 된 순간, 더구나 그 여성이 스토커처럼 집요한 집착을 보일 경우, 그러한 경험은 여성불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아쿠타카와가 만났던 여성들은 대부분 시게코와의 만남 이전의 여성들이다. 그가 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시게코와의 만남 이후 여성과의 만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⁵⁾는 점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는 생각이

23) 『月刊 ほんとうに怖い童話』(2008년 7월호 칼럼) <『唐沢俊一が選ぶアブナイ奇書』의芥川龍之介『或旧友へ送る手記』の紹介>

24) “僕は過去の生活の総決算の為に自殺するのである。しかしその中でも大事件だったのは僕が二十九歳の時に秀夫人と罪を犯したことである。僕は罪を犯したことに良心の呵責は感じてゐない。唯相手を選ばなかつた為に(秀夫人の利己主義や動物的本能は実に甚しいものである。)

【日語教學】芥川龍之介『遺書』<https://www.douban.com/group/topic/41463015/>

25) “僕の生存に不利を生じたことを少からず後悔してゐる。なほ又僕と恋愛關係に落ちた女性秀夫人ばかりではない。しかし僕は三十歳以後に新たに情人をつくつたことはなかつた。”

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과의 인연에 더 이상 고통 받고 싶지 않았던 아쿠다가와는 스스로의 죽음의 충동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는지 모른다.

4. 「무녀의 입을 빌린 사령(死靈)이야기」단락의 마사고의 역할

다조마루는 마사고를 강간한 후 그녀에게 다가가 허리를 낮추고 앉아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한다.²⁶⁾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앞의 두 단락 즉, 「다조마루의 자백(多襄丸の白状)」과 「기요미즈테라에 온 여자의 참회(清水寺に来たる女の懺悔)」단락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다.

여기서 다조마루가 마사고를 강간한 뒤의 행동에 대해 단락별로 정리를 해 보자.

「다조마루의 자백」 단락(이하, 다조마루의 단)

- 女を手に入れることはできたのです。(여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泣き伏した女を後に、藪の外へ逃げようとする。 a (엎드려 울기 시작한 여자를 뒤로하고 수풀 속으로 도망가려고 하다)
- 女は突然わたしの腕へ、氣違ひのやうに縋りつきました。 (여자는 갑자기 나의 팔에, 미친 듯이 달라붙었습니다.)
- この女を妻にしたいと思ひました。 b (이 여인을 처로 삼고싶다.)

「기요미즈테라에 온 여자의 참회」 단락(이하, 마사고의 단)

- わたしを手込めにしてしまふ。(나를 강간하고 말았다.)
- わたしを其処へ蹴倒しました。(나를 그곳에 차서 쓰러뜨렸다.)
- やっと気がついてみると、あおの紺の水干の男は、もう何処かへ行っていました。 c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푸른 남색 비단옷의 남자는 이미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무녀의 입을 빌린 사령의 이야기」 단락(이하, 다케히로의 단)

- 盗人は妻を手込めにする。(도적은 처를 강간하였다.)
- 腰を下ろした儘、いろいろ妻を慰め出した-中略-自分の妻になる気はないか? d
自分はいとしいと思えばこそ、大それた真似も働いたのだ。

【日語教學】芥川龍之介『遺書』<https://www.douban.com/group/topic/41463015/>

26) 腰を下ろしたまま、いろいろ妻を慰め出す。

(허리를 낮춘 채 이것저것 처를 위로하기 시작했다.중략 자신의 처가 될 생각은 없는가?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엉뚱한 짓도 해)

이상과 같이 밑줄 친 a와 c 에서는 강간 후 어딘가로 사라졌거나, 사라지려고 했다는 행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밑줄 친 b와 d에서는 다조마루가 마사고를 처로 삼고 싶다는 심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강간한 후에는 흥미를 잃고 사라지는 모습과, 처로 삼고 싶다는 영속적인 연모의 정을 품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정(情)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조마루의 단락에서 다조마루의 심정은 전반에서는 색욕의 감정을, 후반에서는 연모 감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전반부와 공통하고 있는 마사고 단락에서의 다조마루는 색욕뿐인 다조마루이지만, 후반부에서 공통하는(다케히로 단락에 등장하는)다조마루는 연모의 정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조마루는 당초 마사고에게는 연모의 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여기서 마사고는 다조마루의 설득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내고 일시적으로는 그대로 사라져버리려고 했지만,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저는 저 사람이 살아있고서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²⁷⁾라고 외친다. 그것은 마치 ‘미친 듯’²⁸⁾한 모습이었으며 그 몸짓은 ‘도적의 품에 매달리듯 안기는’²⁹⁾ 처사였다. 이것도 다조마루 단락에서의 마사고의 모습, 또 마사고의 단락에서 마사고가 다케히로에게 말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하는 다케히로의 죽음을 바라는 마사고의 행동은 다케히로가 다조마루에게 강간 당하는 마사고의 ‘수치(恥)’를 봤다고 하는 마사고의 자존심에서 생겨난 감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본 단락(다케히로의 단)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다케히로는 이러한 마사고의 말을 ‘증오스러운 말’³⁰⁾ ‘저주스러운 말’³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도적조차도 색정을 잃어버렸다’³²⁾고 하고 있듯이, 다케히로 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조마루는 마사고를 낙엽 위에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는 “저 여자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죽여줄까? 아니면 살려줄까?”³³⁾ 라고 다케히로에게 묻는다. 이처럼 다조마루도 마사고의 말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저는 저 사람이 살아있고서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불쾌하게

27) “あの人を殺してください。私はあの人がいきていては、あなたといっしょにはいられません。”

28) ‘気が狂ったように’

29) ‘盗人の腕に縋り’

30) ‘憎むべき言葉’

31) ‘呪はしい言葉’

32) “盗人さへ色を失ってしまった”

33) “あの女はどうするつもりだ? 殺すか? それとも助けてやろうか?”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조마루는 마사고에게 색욕이 아닌 연모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사고 단락에서 다조마루는 마사고에 대한 색욕만이 가득했던 다조마루의 본래 모습, 즉 마사고를 차서 쓰러뜨리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조마루의 감정이 다조마루의 단락과는 반대로 연모에서 색욕만을 생각하는 감정으로 바뀌었으며, 더구나 강간이 끝난 뒤 색욕조차 사라진, 그야말로 마사고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생사를 다케히로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왜 앞의 두 단락과 똑 같은 행동을 취한 마사고에 대해, 본 단락에서는 이렇게 싫어하게 된 것일까? 그 점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각 단락에서의 마사고의 말을 발췌해 본다.

「다조마루의 자백」 단락(=다조마루의 단)

あなたが死ぬか夫が死ぬか、どちらか一人死んでくれ、二人の男に恥じをみせるのは、死ぬよりつらい a(中略)そのうちどちらにしろ、生き残った男に連れ添ひたい。

(당신이 죽을지 남편이 죽을지, 어느 쪽이든 한 사람 죽어줘요. 두 남자에게 수치를 보인 것은 죽기보다 괴로워요. (중략) 어느 쪽이든 살아남은 자를 따르고 싶어요.)

「기요미즈테라에 온 여자의 참회」 단락(=마사고의 단)

もうかうなった上は、あなたとご一緒には居られません。私は一思ひに死ぬ覚悟です。しかし—しかし、あなたもお死になってください。あなたはわたしの恥をご覧になりました。 b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각오하고 죽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당신도 죽어주세요. 당신은 저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무녀의 입을 빌린 사령의 이야기」 단락(=다케히로의 단)

あの人を殺してください。わたしはあの人が生きていては、あなたと一緒にはいられません。

(中略)あの人を殺してください。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저는 저 사람이 살아있고서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여기서 공통되는 개념은 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사고가 다조마루 아니면 다케히로 중 어느 쪽과 함께하는,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줄친 a와 b에 나타나 있듯이 다조마루에게 강간당한 마사고의 수치스러움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나 그 마사고의 수치심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다케히로 단락에는 기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케히로 단락에서의 마사고는 다만 다케히로의 죽음을 바라고

있을 뿐이며, 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케히로와 다조마루는 마사고가 다조마루에게 다케히로의 죽음을 청하는 모습을 단순한 변심 후의 마무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케히로는 마사고가 다조마루에게 ‘그럼 어디라도 데려가 주세요’³⁴⁾라고 한 것은 ‘처의 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남자는 마사고가 강간당한 사실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다조마루를 선택하려는 진의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다조마루는 마사고의 생사여부를 다케히로에게 물어봄으로써³⁵⁾ 다케히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다케히로는 다조마루에게 ‘나는 이 말만으로도 도적의 죄는 용서해 주고 싶다’³⁶⁾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고찰된다. 이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다케히로는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다조마루에게 속임을 당한 점, 따라서 그 결과 마사고를 강간당하도록 만든 점, 다조마루가 느낀 사랑스러운(愛しい) 감정의 동기는 차치하고, 거짓말과 강간이라는 행위에 의해 마사고를 손에 넣고자 한 행동은 죄의 개념으로서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남자는 모두 자신들의 욕심이나 잘못은 알지 못한 채 다만 마사고가 강간당한 뒤의 행동에 대해서만 시선을 맞추고 있어서, 마사고의 기분은 전혀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가 아쿠타가와와의 시선과도 맞물리는 점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야지마신자부로(宮島新三郎)의 평론 『芥川氏の「藪の中」その他』³⁷⁾에는 아쿠타가와와 소설의 결정적 특징이라 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아쿠타가와와의 오늘날까지의 예술은, 이지(理知)의 예술이며 질서의 예술이며 메카니즘의 예술이었다. 따라서 그 감축은 금속적이고 준냉(俊冷)적이며 고정적이었다. 인간 심리를 그리지만 기계적이며 심리적이지 않다. 기쁨을 붓고 있는 동안은 움직이지만 그것이 끝나면 운전을 중지하는 기계와 같은 인물이 많았다.»³⁸⁾

즉, 마사고의 남편 살해라는 극적인 허구를 이끌어 내는 과정 속에서, 아쿠타가와와의 이지적 예술성은 금속적이고도 기계적인 여성 마사고를 창조해 내었던 것이다.

34) では何処へでもつれて行ってください。

35) あの女はどうするつもりだ? 殺すか、それとも助けてやるか? 返事はただ頷けばいい。殺すか?

36) おれはこの言葉だけでも、盗人の罪は赦してやりたい。

37) 1922년(大正11년2월1일(「新潮」))

38) 「概括的に言えば、芥川氏の今日までの芸術は、理知の芸術であり、秩序の芸術であり、メカニズムの芸術であった。従ってその感触は、金属的で、俊冷的で、固定的であった。人間の心理を描いても、従ってメカニクであって、サイコロジカルではない。油を注いでやる間は、動くが、それがきけると運転を中止する機械といったような人物が多かった。」

마사고의 말과 행동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마사고상을 향한 많은 조형이 작가 아쿠타가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독자가 마사고라는 대상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져 올 과장, 즉 보통의 여성이었다면 이해불가 할 언행에 대해 일반여성이 가질 수 없는 차가움·숙명적 운명을 지닌 여성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아쿠타가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아쿠타가와가 마사고를 통해 그려낸 여성은 그야말로 차가운 이성을 지닌 기계와 같은 여성이다. 하나의 틀로는 정리되지 않는 변신의 빠름과 멈춤이 없는 행동은 그녀만의 특성이자. 그와 같은 복잡한 여성을 그려내기 위해 『야부노나카』의 형식은 기묘하리만치 적합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 사람의 당사자들의 고백과 자백에 의해 분열되고 있는 마사고의 세 가지 상은, 다케히로 죽음의 단락에 의해 앞뒤로 엮이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여성이면서 한 사람이 아닌 여성상, 그것은 아쿠타가와가 탄생시킨 가장 독자를 홀리는 수수께끼와 같은 여성불신을 엿볼 수 있는 여성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다케히로 죽음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마사고

마사고는 다케히로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무슨 한마디를 외치는가 싶더니 바로 숲 안으로 달아나기 시작(何か一声叫ぶが早い、忽ち藪の奥へ走り出す)’했다. 그것은 불의에 덮친 마사고의 단도를 피한 다조마루의 민첩함조차도 알아차릴 수 없었던 재빠른 행동이었다. 그러나 마사고는 앞의 두 단락에서 ‘二人の男に恥じをみせるのは、死ぬよりつらい’ ‘私は思ひに死ぬ覚悟です’라고 말하고 있어서, 마사고는 스스로 수치심에 대해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단락에서도 마사고는 강간당한 시점에서 이미 죽음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사고는 왜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것일까. 마사고는 마사고의 참회단락에서, 자신에게 계속 멀리하듯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케히로에 대해

‘수치심, 슬픔, 화가 남—그 때 내 심정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중략) 저는 찢어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면서’³⁹⁾

39) 恥しさ、悲しさ、腹立たしさ—そのときの私の心の中は、何と云へばいいかわかりません。(中略)わたしは裂けさうな胸を抑へながら

라는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강간당한 것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다케히로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케히로의 단락에서도 마사고는 같은 상황을 감지하고 그와 같은 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를’ 생각 때문해야 말로, 마사고는 사라지기 직전 무언가 외마디 소리를 질렀던 것인지 모른다. 마사고가 사라진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을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는 사태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마사고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남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앞 두 단락에서 공통하는 ‘기가 센 여자(気性の烈しい女)’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사고의 기센 기질을 앞 두 단락에서 상징하는 것이 단도이다.

여기서 다케히로 단락의 단도의 쓰임(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다조마루는 다케히로의 모든 무기를 빼앗고 사라졌다. 남겨진 다케히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 때 사용한 것이 ‘처가 떨어뜨린 칼(妻が落とした小刀)’이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그야말로 다조마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이며, 강간당한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마사고가 일으킨 ‘기센 행동’ 즉 다조마루를 향해 칼을 쏘는 행동이 결국 다케히로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다케히로의 죽음에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가만히 가슴에 꽂힌 단도를 뽑았다. 동시에 나의 입에서는 한 번 더 피가 쏟아지며 흘러내렸다. 나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어두운 죽음의 세계로 가라앉고 말았다.’ 40)

이처럼 다케히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지만 종지부는 찍은 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이다. 그렇지만 다케히로는,

다조마루가 사라지기 전 ‘긴 칼과 활과 화살을 집자 나를 묶고 있던 줄을 한군데 잘라주었다. 나는 도적이 숲 밖으로 모습을 감추어버릴 때 -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今度は身の上) - 그렇게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41)

40) 誰かは見えない手に、そって胸の小刀を抜いた。同時におれの口の中には、もう一度血潮が溢れて来る。おれはそれぎりに永久に、中有の闇へ沈んでしまった。

41) 太刀や弓矢を取り上げると、一箇所だけおれの縄を切った。おれは盗人が藪の外へ、姿を隠してしまふ時に、かう呟いたのを覚えている。

고 한다. 이것은 다조마루 단락에서 다조마루가 말한 내용 즉

‘이것은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큰칼과 활과 화살을 빼앗자 곧바로 다시 본래 산길을 따라 나왔다.’⁴²⁾

는 진술과 일치한다. ‘미노우에(身の上)’라는 것은 운명(목숨)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조마루는 자기보호를 위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라졌고, 다케히로 또한 ‘중얼거렸다(呟いた)’고 말한 것 외에 일부러 ‘기억하고 있다’고까지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다조마루가 금품이 될 만한 큰칼과 활과 화살을 빼앗은 이상, 신변의 위험을 무릎 쓰고 다케히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다케히로의 묶인 밧줄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한군데 잘라준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마사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다조마루가 구태여 다케히로를 살해할 필연성 자체는 없다고 생각된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단도를 살며시(そっと) 뽑았다는 그러한 섬세한 표현은 그 누군가가 여성임을 연상시키는 묘사라고 생각한다. 후일 다케히로의 시체를 처음 발견한 나무꾼은 ‘밧줄 옆에 빛이 하나 있었습니다.’⁴³⁾라고 증언하고 있다. 밧줄은 다케히로의 몸을 묶었던 것이겠지만, 빛은 이 나무꾼의 증언 외에는『야부노나카』원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즉 시체 발견 시 빛이 떨어져 있었다고 함으로써 묘사되지 않은 장면을 연상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조마루의 단락에서 다조마루는 다케히로를 살해한 후 마사고를 찾아 잠시 주위를 헤맨다. 마사고 단락에서도 마사고는 다케히로 살해 후 정신을 잃고 그 장소에서 머물렀다. 더구나 정신을 차린 후에도 다케히로의 시체에서 밧줄을 제거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앞의 두 단락에서는 다케히로의 죽음 이후, 살해한 인물이 다케히로 측에서 뭔가 동작을 하는 경위가 분명히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그 때 빛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었다. 다만 다케히로 단락에서만 다케히로 사후, 다케히로를 살해한 당사자 이외 어떤 인물이 나타나며, 그 인물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은 끝난다. 따라서 다케히로의 죽음에는 본인 외 다른 인물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원전에 없는 빛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빛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머리를 빗거나 혹은 장식하는 용도로 쓰인다. 따라서 성질 상, 그 주인이 여성일 것이라는 연상을 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다케히로 자살 이후 나타난 인물이 다조마루가 아닌, 더구나 여성일 가능성을 시사

42) ‘今度は私の命ですから、太刀や弓矢を奪ったあと、すぐに又もとの山路へ出ました.’

43) ‘縄の外にも櫛が一つございました.’

하는 것이라면 연상되는 인물은 마사고 밖에는 없다. 즉 마사고는 다조마루와는 달리, 자신이 떠나기 전 다케히로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단락에서는 다케히로 죽음의 원인에는 마사고의 기센 기질적 행동, 그리고 죽음의 수단으로 마사고의 기센 기질을 잘 보여주는 단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다케히로의 자해 장면과 관련한 인물묘사를 통해 여성이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다케히로의 숨을 끊는데 일격을 가하는 인물로 마사고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이와 같이 다케히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듯 보이는 다케히로 단락에서도 다케히로의 죽음에 마사고가 깊이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야부노나카』는 한편으로 보면 마사고의 역할과 마사고상을 이용하여 남자의 부당함과 맞서는 여성의 보복과 강함을 묘사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남편 다케히로가 강간당한 처를 강간당했다는 의미에서 타자(他者)로서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 또 다조마루가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라고 외치는 마사고를 한발로 차 쓰러뜨리고 다케히로를 향해 마사고의 생사여부를 묻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다케히로의 반응을 통해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적 배제도 엿볼 수 있다. 즉 마사고(여성)를 바라보는 두 남자의 태도는 자신들의 욕심이나 잘못된 차치하고, 다만 여성의 결과적 행동에 대해서만 차가운 시선을 두고 있다. 결국 마사고의 기분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작가 아쿠타가와와 남성으로서의 시선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최초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은 모친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검토되지만, 마사고의 행위 즉 남성을 자살이라는 죽음으로 이끈 점과 남자의 시선에 따른 강간당한 이전 다른 남자와 육체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보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야부노나카』를 집필하기 직전 히데 시게코와의 만남과 이별이 결코 우연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시게코와 마사고의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결국 아쿠타가와 자신의 여성불신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나아가 다케히로 죽음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마사고의 기센 기질적 행동 그리고 죽음의 수단으로서 마사고의 기질을 잘 보여주듯 단도를 사용하고 있는 점, 더구나 다케히로의 자해 장면과 관련된 인물묘사에서 누가 범인인지 그 진상은 알 수 없지만, 결국 범인은 여성일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 그것은 다케히로의 숨을 끊는데 일격을 가한 인물로서 마사고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다케히로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 듯 보이는 다케히로 단락에서조차도 그 죽음에 마사고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다조마루의 자백」 단락과 「기요미즈테라에 온 여자의 참회」 단락, 「무녀의 입을 빌린 사령의 이야기」 단락에서의 마사고는, 여러 형태로 ‘기가 센 여자’로 묘사되면서 마사고가 다케히로의 죽음과 깊이 관련되고 있으며 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 인식이 다케히로의 죽음의 원인제공자로 마사고를 설정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추론된다.

【參考文獻】

- 『芥川竜之介全集』第22卷、新潮社、pp.323-333
 『芥川竜之介全集』(1999)第1卷、2卷、岩波書店、p.378、p.395
 篠崎美生子(2005)「資料室」『芥川龍之介』翰林書房<日本文学コレクション>、pp.48-50
 宮島新三郎(1922)『芥川氏の「藪の中」その他』『新潮』
 今野喜和人(1993)「芥川竜之介と<運命の女>」『比較文学』15號
 篠崎美生子(2004)「ジェンダー芥川と芥川研究を問ひ直す鍵」『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福島章(1983)「病跡学から見た芥川龍之介」『国文学解釈と鑑賞』48(4)、pp.169-174
 宮島新三郎(1922)「芥川氏の「藪の中」その他」『新潮』
 中村光夫(1970)『「藪の中」から「すばる」』集英社新書、p.102
 渡辺利雄(2014)『アメリカ文学に触発された日本の小説』研究社、pp.155-177
 和田敦彦(1990)『「藪の中」論の方法-読書行為論の一環として』『国文学研究』第102号、早稲田大学国文学会、p.385
 高橋修(2000)『芥川龍之介全作品事典「藪の中」』関口安義編、勉誠出版、p.18、p.562
 笠井秋生(1993)『芥川龍之介作品研究』双文社出版、pp.150-151、p.116
 大岡昇平(1975)「芥川龍之介を弁護する—事実と小説の間—」『芥川龍之介』河出書房新社<文芸読本>、p.95、pp.90-101
 高田瑞穂(1976)『「藪の中」論』『芥川竜之介論考』有精堂、p.137
 김영희(2015)「야부노나카(藪の中)소고찰(1)-다조마루(多襄丸)의 자백을 통해 본 마사고(真砂像)」『일본근대학연구』제47집, p.214
 _____(2015)「아쿠타가와와 전디의식-데고메소설로서의 야부노나카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50집, p.261
 _____(2015)「야부노나카 소고찰(2)-기요미즈테라에 온 여자의 참회 단락에서 보는 마사고의 사랑」『일본문학연구』제56집, p.22
 _____(2016)『「야부노나카」사실의 진상과 범인 찾기』일본문화연구제59집, p.5
 _____(2016)「아쿠타가와와 마사고상(像)조형(造形)」『일본근대학연구』제52집, p.182
 藪の中 - Wikipedia <http://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16.08.12.)

<https://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16.08.13)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haotic_lord(검색일: 2016.08.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ruruka&logNo>(검색일:2016.08.24)

「藪の中」([wikipediahttps://ja.wikipedia.org/wiki/](https://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16.08.24)

<http://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16.09.19)

논문투고일 : 2016년 09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6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16년 1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6년 11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5일

 <要旨>

『야부노나카(薺の中)』 소고찰(3)

- 다케히로(武弘)죽음의 원인과 마사고(真砂)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영희

본 연구는『야부노나카』의 여주인공 마사고를 통해 바라보는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적 사고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남편 다케히로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마사고와의 영향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야부노나카』는 한편으로 남자의 부당함과 맞서는 여성의 보복과 강함을 묘사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적 배제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한 점에서 작가 아쿠타가와와 남성으로서의 시선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야부노나카』집필 직전 히데 시게코와의 만남과 이별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게코와 마사고의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적 인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다케히로의 죽음의 원인과 관련해서 마사고의 기센 기질적 행동과 죽음의 수단으로서 단도를 사용한 점, 다케히로의 자해장면과 관련한 인물묘사를 통해, 결국 범인은 여성일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 이것은 다케히로의 죽음의 최종 가해자로서 마사고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즉 다케히로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 듯 보이는 다케히로 단락에서조차도, 그의 죽음에 마사고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적 인식이 다케히로의 죽음의 원인제공자로 마사고를 설정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검토된다.

Yabunonaka(3)

- Takehiro's Cause of Death and Relationship with Masago -

Kam, Young-Hee

This study examines Akutagawa's embedment of distrust in women through Yabunonaka's female main character's (Masago) view; furthermore, it analyzes how the relationship with Masago played a role in the death of her husband Takehiro.

In one aspect, it may be stated that this piece of literary work portrays Yabunonaka's retaliation and strength against men's unfairness. However, in this piece of work, one can get a glimpse of an exclusion of women's physical abuse by men.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s male perspective view has been revealed. Right before Yabunonaka's writing,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eeting and the break up with Hide Sigeko had an affect in this revelation. Also, as the piling of Sigeko and Masago's images occurred, Akutagawa's embedment of distrust in women played a big role. Not only that, pertaining to the cause of Takehiro's death, the foreshadowing of the killer being a woman is evident by the use of a dagger as a means of killing. Masago's spiritual-energy filled action and through Takehiro's self-harm relevant to the portrayal of characters. This act associated Masago as the prime assailant. Even the dagger which was supposedly used for this falsify suicide, made it seemed like Masago was heavily involved. Finally, the findings suggest that Akutagawa's embedment of distrust in women was a contributing factor that served as basis for establishing Masago as the murderer in Takehiro's death.